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김소연¹, 박미지¹, 박부경^{2*}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So-Yeon Kim¹, Mi-Ji Park¹, Bu-Kyung Park^{2*}

¹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와 K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6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57, p<.01$)를 보여 주어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성별($t=.05, p=.963$), SNS인맥수($t=.66, p=.513$), SNS에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t=-1.24, p=.216$)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SNS사용목적 중 정보수집을 위해 SNS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t=3.02, p=.030$), SNS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9, p=.759$).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SNS중독을 예방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s well as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of SNS addiction preven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6 undergraduate students in D and K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ne 30 and July 30, 2017.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The results showed that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r=-0.57, p<.01$), indicating students with higher SNS addiction had lower interpersonal satisfa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y gender ($t=0.05, p=0.963$), number of SNS networks ($t=0.66, p=0.513$), or number of SNS-only networks ($t=-1.24, p=0.216$). Students who used SNS for data colle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erpersonal satisfaction ($t=3.02, p=0.03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purposes for using SNS ($t=0.39, p=.759$).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an intervention to improv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prevent SNS addi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eywords : Internet, Interpersonal satisfaction, SNS addiction, Social media, Undergraduate students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R1C1B2013649)

*Corresponding Author : Bu Kyung Park(Kyungpook National Univ.)

Tel: +82-53-420-4929 email: bukpark@knu.ac.kr

Received February 1, 2018

Revised February 22, 2018

Accepted April 6,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휴대용 컴퓨터의 보급, 네트워크 발달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42.9%가 스마트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보다 강하게 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폭넓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의된다[2]. SNS는 IT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정보공유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욕구 해소의 새로운 소통방식이 되었다[3].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모바일 SNS로 이전하였는데, 이와 함께 SNS 관련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SNS 이용률은 2011년 16.8%에서 2015년 43.1%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용자들은 다양한 SNS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다[4]. 이처럼 SNS는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며,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SNS가 인간관계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이제는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된 SNS의 이용[4]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연결의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제공해주는 반면, 대인관계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스펙(Specification)'으로 가볍게 여기며 대인관계의 질과 본질적인 친밀감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SNS의 활용과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부정적 측면의 사회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 노출,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과 SNS 중독 문제 등이 그것이다. SNS 사용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중독 장애: Face book, Twitter Addiction Disorder(FTAD)'란 용어가 사용되면서 SNS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5].

Erikson(1959)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는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자아 정체감확립이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효율적으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성숙하고 건강한 자기상을 발달시키지만, 실패하게 되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6]. 이 시기에 겪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향후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또한, 대인관계문제가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병리증상을 유발시키게 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8]. 그리고 전공 공부 및 취업준비 등으로 공부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이 SNS에 중독되어 시간을 허비할 경우 학업적 성취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9].

기존의 연구들에서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SNS중독경향성은 현실 속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줄여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여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1,12].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SNS를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이 때 경험하는 '사회적'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삶에서의 대인관계 질과 친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13,14]. 즉,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SNS가 중독적인 과다 사용으로 주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 결과를 초래한다[15].

이렇게 대인관계가 중요한 대학생들에게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실제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SNS 중독경향성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SNS과다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향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SNS사용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SNS를 사용하는 D시와 K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340명이 요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설문을 3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D시와 K지역권에 있는 대학교 공식 페이지에 연구 안내를 게시하고, 해당 안내문에 온라인 설문 링크를 포함하여 관심있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 [1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현과 서경현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 .86,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78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93, SNS 과잉소통과 몰입 .85,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87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6이었다.

2.3.2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측정을 위해 Schlein, Guerney[1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8]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의 총 25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변화 척도는 7개 하위요인(제1요인: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만족감, 제2요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의 곤란함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제3요인: 타인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뢰감, 제4요인: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측정하는 친근감, 제5요인: 타인이 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민감성, 제6요인: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개방성, 제7요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이해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선모의 연구[18]에서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만족감 .76, 의사소통 .74, 신뢰감 .73, 친근감 .77, 민감성 .62, 개방성 .65, 이해성 .68이고,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고,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SNS인맥수는 100명~20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되었기에 [19], SNS 인맥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SNS인맥수 200명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 된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2017-0101].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문을 모두 읽고 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할 수 있었으며, 피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유발될 경우 언제든지 즉시 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과 설문지에 표시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순수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 노출 없이 모든 자료는 분석 후 파기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할 경우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전체 316명 중 성별분포는 남자 94명(29.6%), 여자 222명(69.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2.1세이고, 학년분포는 1학년 93명(29.2%), 2학년 117명(36.8%), 3학년 91명(28.6%), 4학년 2명(0.6%), 휴학생 13명(4.1%)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교 수는 총 14개 대학이었다. 전공은 인문대학 12명(3.8%), 사회과학대학 21명(6.6%), 경상대학 29명(9.1%), 이과대학 5명(1.6%), 공과대학 92명(28.9%), 보건의료 114명(35.8%), 자연과학대학 26명(8.2%), 교육계열 12명(3.8%), 예체능계열 5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s (N=316)

		N	%
Gender	Male	94	29.7
	Female	222	70.3
Age	20 ~ 22	224	70.9
	23 ~ 25	86	27.2
	Over 26	6	1.9
Grade	Freshmen	93	29.4
	Sophomore	117	37.0
	Junior	91	28.8
	Senior	2	0.6
	Temporary absence	13	4.1
	total	316	100.0

3.2 대상자의 SNS사용 특성

연구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293명, 57.51%)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SNS 사용시간은 1~3시간이 가장 많았다(293명, 48.1%). SNS인맥 수는 101~200명이 가장 많았고(77명, 24.4%), 400명이상의 SNS인맥 수를 가진 대상자도 20.3%를 차지하였다. 전체 SNS인맥 중 오로지 SNS상에서만 연락하는 인맥이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08명, 34.2%) [Table 2]. SNS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정보나 소식 등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238명, 38.2%)가 가장 많았고, ‘오락 및 여가를 위해서’ (223명, 35.8%)가 두 번째로 많았다. SNS 주 활동유형은 ‘타인의 게시물 읽기’ (294명, 51.1%)이었다.

Table 2. SNS usage characteristics (N=316)

		N	%
SNS use hours per day	Less than 30 min.	47	14.9
	1hours ~ 3 hours	152	48.1
	3 hours ~ 5 hours	85	26.9
	More than 5 hours	32	10.1
Frequently using SNS	Facebook	293	57.5
	Twitter	29	50.7
	Me2day	1	0.2
	Instagram	187	36.7
Number ofSNS networks (persons)	1 ~ 50	24	7.6
	51 ~ 100	51	16.1
	101 ~ 200	77	24.4
	201 ~ 300	64	20.3
	301 ~ 400	36	11.4
Number ofSNS-only networks (persons)	More than 400	64	20.3
	None	17	5.4
	A few	55	17.4
	Half	108	34.2
	More than half	75	23.7
	Most	61	19.3
Total		316	100

3.3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은 총점이 48.67점이고, 하위 항목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은 24.39점, SNS과잉소통과 몰입은 16.97점, SNS에 과도한 시간소비는 7.30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총점이 90.67점이었으며, 하위 항목인 만족감 14.51점, 의사소통 14.71점, 신뢰감 10.63점, 친근감 10.98점, 민감성 7.44점, 개방성 17.10점, 이해성 15.29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otal (N=316)	Gender		Number of SNS networks (persons)		Number of SNS-only networks (persons)		
		Male (N=94)	Female (N=222)	0~200 (N=152)	More than 200 (N=164)	SNS-only networks less than 50% (N=180)	SNS-only networks more than 50% (N=136)	
								M(SD)
SNS addiction proneness (Range: 20-80)	Attachment/ Withdrawal symptom (Range: 10-40)	24.39 (8.94)	24.36 (10.50)	24.41 (8.21)	23.91 (9.52)	24.86 (8.37)	24.96 (9.33)	23.67 (8.38)
	Excessive communication/ absorption (Range: 7-28)	16.97 (5.22)	17.19(6. 10)	16.87 (4.81)	17.01 (5.75)	16.73 (4.69)	17.36 (5.46)	16.46 (4.85)
	Excessive time consumption (Range: 3-12)	7.30 (2.99)	7.19 (3.38)	7.35 (2.82)	7.10 (3.24)	7.48 (2.75)	7.35 (3.14)	7.23 (2.80)
	Total	48.67 (16.54)	48.74 (19.61)	48.63 (15.10)	48.03 (18.01)	49.26 (15.09)	49.67 (17.40)	47.34 (15.29)
	t (p)		0.05	(0.963)	0.66	(0.513)	-1.24	(0.216)
Interpersonal satisfaction (Range: 25-125)	Satisfaction (Range: 4-20)	14.51 (2.35)	15.12(2. 31)	14.26 (2.33)	14.56 (2.48)	14.47 (2.48)	14.60 (2.34)	14.40 (2.37)
	Communication (Range: 4-20)	14.71 (2.60)	15.34(2. 55)	14.46 (2.33)	14.40 (2.49)	15.00 (2.68)	14.86 (2.51)	14.52 (2.70)
	Trust (Range: 3-15)	10.63 (1.88)	10.97(1. 70)	10.48 (1.930)	10.70 (1.91)	10.55 (1.84)	10.74 (1.79)	10.47 (1.97)
	Friendliness (Range: 3-15)	10.98 (1.84)	11.55(1. 62)	10.73 (1.87)	10.88 (1.69)	11.07 (1.96)	11.02 (1.83)	10.91 (1.84)
	Sensitiveness (Range: 2-10)	7.44 (1.43)	7.20 (1.44)	7.54 (1.41)	7.35 (1.32)	7.53 (1.51)	7.55 (1.35)	7.30 (1.52)
	Openness (Range: 5-25)	17.10 (3.09)	17.93(2. 91)	16.76 (3.11)	16.59 (3.05)	17.58 (3.07)	17.37 (2.89)	16.76 (2.54)
	Understanding (Range: 4-20)	15.29 (2.42)	15.60(2. 28)	15.15 (2.47)	15.29 (2.31)	15.29 (2.53)	15.48 (2.31)	15.02 (2.54)
	Total	90.67 (11.94)	93.73 (10.90)	89.38 (12.15)	89.77 (10.99)	91.51 (12.73)	91.64 (11.23)	89.40 (12.75)
t (p)		3.00	(0.003)	1.30	(0.196)	-1.66	(0.099)	

3.4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57, p<.01$),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SNS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변인들 중 의사소통($r=-.64, p<.001$), 신뢰감

($r=-.55, p<.001$), 친근감($r=-.17, p=.002$), 민감성($r=-.14, p=.010$), 개방성($r=-.51, p<.001$), 이해성($r=-.51,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 대인관계는 SNS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들인 SNS침착 및 금단증상($r=-.61, p<.001$), SNS과잉소통과 몰입($r=-.47, p<.001$),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r=-.54, p<.001$)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1	1-1	1-2	1-3	2	2-1	2-2	2-3	2-4	2-5	2-6	2-7
1	1											
1-1	.99**	1										
1-2	.94**	.88**	1									
1-3	.95**	.93**	.83**	1								
2	-.57**	-.61**	-.47**	-.54**	1							
2-1	-.05	.04	-.03	.01	.32**	1						
2-2	-.64**	-.68**	-.50**	-.61**	.87**	.08	1					
2-3	-.55**	-.59**	-.44**	-.52**	.78**	-.04	.68**	1				
2-4	-.17**	-.20**	-.12*	-.15**	.63**	.35**	.44**	.43**	1			
2-5	-.14*	-.14**	-.12*	-.16**	.39**	.23**	.25**	.10	.19**	1		
2-6	-.51**	-.54**	-.41**	-.48**	.83**	-.03	.73**	.71**	.37**	.15**	1	
2-7	-.51**	-.53**	-.42**	-.48**	.85**	.22**	.73**	.59**	.47**	.37**	.60**	1

Note. 1.SNS addiction proneness: 1-1 Attachment/Withdrawal symptom; 1-2 Excessive communication/absorption; 1-3 Excessive time consumption / 2. Interpersonal satisfaction: 2-1 Satisfaction; 2-2 Communication; 2-3 Trust; 2-4 Friendliness; 2-5 Sensitiveness; 2-6 Openness; 2-7 Understanding. ** $p < 0.01$ * $p < 0.05$

3.5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여성의 평균은 48.63점, 남성의 평균은 48.74점으로 남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 = .05, p = .963$).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여성의 평균은 93.73점, 남성의 평균은 89.38점으로 여성이 높았다($t = 3.00, p = .003$)[Table 3].

3.6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SNS 인맥 수 0~200명의 평균은 48.03점, SNS 인맥 수 200명 이상의 평균은 49.26점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66, p = .513$).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SNS 인맥 수 0~200명의 평균은 89.77점, SNS 인맥 수 200명 이상의 평균은 91.51점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30, p = 0.196$)[Table 3].

3.7 SNS에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이하인 사람의 평균은 49.67점,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은 47.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24, p = .216$).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이하인 사람의 평균은 91.64점,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은 89.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66, p = .099$)[Table 3].

3.8 SNS 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47.67점이고 오락, 여가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49.9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39, p = .759$).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92.30점이고 오락, 여가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89.32점으로, 정보 수집을 위해 SNS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았다($t = 3.02, p = .030$)[Table 5].

Table 5.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y purposes of using SNS

	For data collection (N=73)	For fun/free time (N=53)	t	p
	M(SD)	M(SD)		
SNS addiction proneness (Range: 20-80)	47.67 (18.32)	49.94 (18.68)	0.39	0.759
Interpersonal satisfaction (Range: 25-125)	92.30 (11.60)	89.32 (10.66)	3.02	0.030

4. 논의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성별, SNS인맥 수, SNS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 SNS사용목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1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대인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2]. 또한 인터넷에 중독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20]와 대인갈등 다루기가 어려울수록, 대인관계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1]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원만한 인간관계 및 새로운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각 및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2]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했으며, 대인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대인관계 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을 보였으며,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G도와 C도에 위치한 전문대학교 1,2학년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에서 SNS중독경향성은 여성일수록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본 연구에서 SNS중독경향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비의 차이(본 연구 70.3 : 29.7 / 선행연구 57.3 : 42.7)와, 선행연구는 두 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서로 다른 연구 지역의 영향이 작용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4.3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행연구[24]에 따르면, SNS인맥 수에 따른 교우관계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 연구의 표본인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SNS를 통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1]. 청소년 집단 특성상 또래집단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학생의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4.4 SNS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본 연구에서 SNS사용 목적으로는 크게 ‘정보나 소식 등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오락 및 여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므로, 이 두 가지 동기로 변인을 분석하였다. SNS사용목적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수집이라는 목적을 갖고 SNS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공유 및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오락, 여가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 달성해야할 특정 목적이 없으므로 SNS상의 상호교류가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25]에서 정보탐색, 엔터테인먼트, 유대감 확인 등의 동기가 있는 경우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의 중독 관

련 연구들이 심리학, 청소년학, 범죄학 등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의학, 간호학, 생리심리학 등과 연계한 연구 및 질적, 양적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기존 연구[10]에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다고 보고한 것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이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지만[23]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SNS중독경향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다차원적인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SNS 중독 상담에서 대인관계를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에 의한 설문 연구로서 전체 집단으로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소재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집단의 특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여성 70.3%, 남성 29.7%로 성별 표집이 균등하지 못하였다. 성별에 따른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르게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개인의 SNS 중독경향성이 실제보다 크거나 적게 보고되었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이 개입되어 편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ystem)중독경향성을 측정하여 변화된 경향을 반영하였

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MSNS (mobile social network system)의 이용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대학생의 SNS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만족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이거나 생활패턴 등의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B. N. Kim,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4, pp. 208-217,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4.208>
- [2]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http://www.kisa.or.kr/eng/main.jsp>
- [3] H. K. Kim, S. J. Oh, "The Psychological Typologies among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Toward the Possibility of New Communication", *Journal of KSSSS*, vol. 22, 161-177, 2011. <http://uci.or.kr/G704-001986.2011..22.008>
- [4] J. H. Kang, T. S. Moon, "Influence of SNS Usag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SNS and Mediating Effect of Habit",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 17, no. 4, pp. 19-34, 2017.
- [5] Young, Kimberly S. "CBT-IA: The First Treatment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vol. 25, no. 4, pp. 304-312(9), 2011. DOI: <https://doi.org/10.1891/0889-8391.25.4.304>
- [6] H. J. Hwang, S. R. Yu,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skill program Interpersonal Relation skills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30, pp. 75-93, 2005.
- [7] E. Y. Yu, C. K. Yoon, Y. J.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1 pp. 274-283,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1.274>
- [8] I. M. Horowitz, J. Vitcus,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pp. 443-469, 1986. DOI: [https://doi.org/10.1016/0272-7358\(86\)90031-0](https://doi.org/10.1016/0272-7358(86)90031-0)
- [9] Hyun-Ju Lee, Hey-Kyoung Kim,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944-395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44>
- [10] H. J. Gu, O. S. Lee, M. J.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and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180-187,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180>

[11] H. J. Song, "A Study on SNS addiction using smart phone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1(2), pp31-49, 2011.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76930

[12] K. H. Hwang, Y. S. Yoo, O. H. Cho,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10), pp. 365-375,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10.365>

[13] J. Raacke & J. Bonds-Raacke. "My Space and Facebook: Apply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o Exploring Friend-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1, no. 2, pp. 169-174, 2008.
DOI: <https://doi.org/10.1089/cpb.2007.0056>

[14] E. B. Weiser, "The functions of Internet use and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Cyberpsychology & Behavior*, pp. 723-743, 2001.
DOI: <https://doi.org/10.1089/109493101753376678>

[15] H. S. Choi, J. C. Ha, "A Study on the factors induc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2(3), pp. 437-448, 2011.

[16] K. H. Seo, S. H. Jo,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8(1), pp. 239-250, 2013.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3.18.1.014>

[17] S. Schlein, B. Guern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iladelphia, 1971.

[18]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 195-203, 1980.

[19] Interpersonal exhaustion among young adults in Korea [Internet]. Seoul: Dong-A Ilbo, 2017[cited 2017 April 4], Available From: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769/3/70030000000769/20170404/8367508/1#replyLayer. (accessed February 21, 2018)

[20] Young, Kimberly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3), pp. 237-244, 2009.
DOI: <https://doi.org/10.1089/cpb.1998.1.237>

[21] S. K. Park, E. Y. Le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Overuse Of Smartphone -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8, pp. 669-676,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8.79>

[22] H. G. Eun,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9(1), pp. 136-157, 2001.

[23] I. S. Lee, J. Y. Jo,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23-2633, 2012.

[24] S. I. Kim, "The influence on friendships motivated by

the use of SNS", Unpublished academic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2014.

[25] Y. Seong, M. H. Hyu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 Student's Motives for Using SNS and SNS Addiction Tendency: Focused on Facebook",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4, no. 4, pp. 257-263,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57>

김 소 연(So-Yeon Kim)

[준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관심분야>
아동간호, 기본간호

박 미 지(Mi-Ji Park)

[준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관심분야>
아동간호, 기본간호

박 부 경(Bu Kyung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4년 7월 :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간호정보